



바벨론 시대

멸망 587 왕하25

바벨론 포로생활 시편137

고통과 슬픔 애가1-5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559-530(주전)

고레스 칙령(538), 1차 귀환(536)

세스바살, 성전재건 시작

캄비세스 530-522

성전 재건 중단

다리오 (다리우스1) 522-486

학개/성전건축 재개(520, 다리오2년)

스가라 선지자 활동

성전 완공(515, 다리오6년)

아하수에로 (크세로크세스)

486 -465 에스더, 모르드개

아닥사스다1(룽기마누스)

2차 귀환, 에스라(458) 영적개혁

3차 귀환, 느헤미야(445) 성벽재건

참고도서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 엑스포지멘터리 주석

한권으로 마스터하는 구약

(Lesen und Verstehen I)

* '오래된 새 길'은

김기석목사(청과교회)의 서명에서

차용한 표현입니다.

또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도움)와 느헤미야(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도움과 위로가 간절했던 시기에

그들의 이름대로 쓰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감 안에서

어떤 상황 중에도 평정을 잃지 않고 새 길을 찾아갔습니다.

영적 개혁과 성벽 재건으로 새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1차로 귀환한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했고(515),

2차로 귀환한 공동체는 영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458).

3차로 귀환한 공동체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445).

새 시대의 공동체는 한 두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

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했습니다(느3장).

에스라/느헤미야는 전체 분량의 1/4을 할애하여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들의 이름과 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특정 공간만을 성별하지 않았습니

다. 도시와 일상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느3:1, 8-13장, 11:1).

또한 그들은 구전되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멸망과 고통의 ABC를 거쳐 힘들게 돌아온 예루살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으로부터 길을 찾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지 못했던 그 길.

그들은 <오래된 새 길>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에스라/느헤미야서는 본래 한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주후 2세기 혹은 3세기 초에 2권으로 분리됩니다.)

두 책 모두 귀환 공동체가 새로이 정립하고 있는 삶과 제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절차가 과거 출애굽 백성들의 행보와 매우 유사합니다.

히브리 민족<유대인>은 이집트를<바벨론>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돌아>갑니다.

그들은 출애굽<귀환> 당시 이집트<바벨론> 이웃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출12:35-36, 스1:6).

백성은 성막<성전>을 만들기<재건하기> 위해 기쁨으로 헌물을 드립니다(출35:20-29, 스2:68-69).

귀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마치고 출애굽과 관련된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킵니다(스6:19-22, 느8장).

출애굽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 거듭났듯이(출19:5-6),

귀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순종하는 데 주력합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려는 순전한 마음과 열정이 에스라/느헤미야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새 시대의 뚜렷한 변곡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은, 행위 전반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과감한 결단>으로 표출됩니다.

법을 떠나 행했던 모든 일을 끊고자 할 때, 감내 할 고통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스10:10-12, 44).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에 관한 조치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에 심히 치우쳐 있을 때, 시소의 중심을 옮기십니다.

에스라/느헤미야의 때는 유대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했던 시기입니다.

수적인 열세와 오랜 타향살이로 정체성이 흔들리던 시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생존과 회복, 존재 이유를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룯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 번 시소의 중심을 옮기십니다.

주류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름 없이 소외받고 사라질 처지에 있던 이방 여인을 돌보십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오히려 무시당하고 차별 받던 이방 여인을 위해 세심한 손길로 살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십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로 난 길은 낯선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먼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길,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오래된 새 길>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 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 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메시지성경 신명기 30:11-14 중)